

# 광주 주요 문화예술기관장 인선 앞두고 하마평 무성

## 시립미술관장·비엔날레 대표이사 공모 진행·예정 '사전 내정설' 등...시민단체 "정치적 개입 없어야"

'예향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 주요 문화예술기관장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지연, 학연으로 엮힌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준기 광주시

립미술관장 임기가 오는 19일 만료되는 가운데 새 관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기준 응모자 11명 중 10명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가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아직 공모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강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공공기

관장에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춘 기관장을 임명하라"며 "연초부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에 전문성 없는 지역 정치인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전문성 없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12월 말 박양우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역 문화계 안팎에서 차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로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A씨는 공모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드릴 말

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를 앞두고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시립미술관 공모와 관련해 규정이 바뀐 직후 공모에 참여한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 시장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한 기관의 관계자 B씨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조직 개편일 뿐 관장 공모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지원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또한 "이번 개편은 업무 전문성 확대를 위해 광주시 전체 16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일 뿐"이라며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행정직으로 정해져 있던 시립미술관장직을 개방형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시립미술관장 공모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와 자격 검증을 촉구하는 시민·미술인 312명의 연대 서명도 있었다. 이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

사, 각종 의혹과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은 광주가 얼마나 민주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인지 자문하게 한다"며 "모집 공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진 인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 문화계 인사 C씨는 "어느 기관의 장이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광주의 경우 그동안 주요 문화예술기관 수장 선임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미술계와 협력해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명진기자

##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국비 10억 확보...전국 최고 규모

###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전국 공모사업에 2년 연속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일환이다. 오는 3월부터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규모로 전남도민과 함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말에만 집중돼 있던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평일 등 문화수요가 적은 날에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과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민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월요일에 시달리는 사무직 노동자와 전남지역 노동력을 책임지는 계절 노동자를 위한 '월요 문화백신', 평일 여행이나 당일치기 여행의 수요가 증가함을 반영한 '화요 문화정거장' 등이 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장흥군 숲속 공작소에서 열린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모습

특히 도내 곳곳을 찾아가는 '제페도 유랑단'을 구성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 발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찾아가며 계절리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평 받은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발전시켜 올해도 전남의 '문화가 있는 날'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그림책 낭독하고, 종이접기 체험하고

### 문화의숲도서관 독서활동 '다채'

광주 문화의숲도서관(서구 마재로 3)이 2025년 푸른 봄의 해를 맞이해 도서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그림책 낭독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노란 앞치마'와 지난해 문화의숲도서관 '그림책 교육 지도사 3급 프로젝트'를 연계한 독서 활동이다. 그림책 교육 지도사가 겨울방학 기간 도서관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실감 나

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노란 앞치마를 입은 지역 활동가가 그림책 낭독가가 돼 아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 및 상상력·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7일부터 2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노란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어린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른 뒤 '책 읽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된다. 매달 15일부터 말일까지는 북큐레이션 '사서를 만나는 시간'이 운영된다. 사서가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이



양한 주제의 책을 소개한다. 상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도서관 운영시간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패시브 프로그램 '오늘의 종이접기'다. 도서관을 방문한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기자

### ●ACC 개관 10주년 주요 전시·공연

## '흥' 가득한 미디어 판소리극부터 자본세 담론 대규모 상설전까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풍성한 문화행사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먼저 아시아 연출가 3인의 문화해석이 담긴 옴니버스식 연극 '아시아 연출가 3부작: Remapping Asia'이다. '리퀴드 폴리탄', '샤머니즘', '사라져가는 매체들'을 주제로 한국·대만·태국 3인 연출가의 각기 다른 시각의 작품을 트리플 빌(Triple Bill)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 미디어 판소리극 흥보가 '제비노정기'는 판소리 다섯마당 연작 공연화를 추진하는 ACC 예술극장 대표 브랜드 작품 중 하나로 전당의 고도화된 문화기술 인프라와 창·제작 노하우를 통해 공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와 함께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극장의 과거 10년을 되짚어 보는 주요 공연도 다시 무대에 올린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과정에 관객이 직접 주체가 돼 참여하는 관객 참여형 작품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다시 관람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의제로서 세계적 사상의 조류인 자본세 담론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아시아적 전개 상황과 예술적 실천 방식을 탐구하는 대규모 특별 상설전시 '봄의 선언'도 준비 중이다. 전당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석학들과 함께 'ACC 개관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를 마련해 앞으로 10년을 계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지역작가 전시'와 아시아문화박물관 '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ACC재단에도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서커스,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해외 우수 초청 공연 '더 펄스(The Pulse)'로, 서커스를 결합한 이색적인 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오는 10월에는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야외 공연을 펼친다.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와 객석, 아티스트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어 극장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전당은 더 크고 넓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